

김현승 詩 정신 ‘문학제’로 잇다

다형기념사업회, 전일빌딩서 개최 ‘문학상’에 제자 손광은 시인 선정 시 낭송·강연·축하공연 등 다채

김현승 시인의 문학정신 선양과 계승을 위해 제정된 ‘김현승 詩 문학상’에 손광은 시인(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이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다형기념사업회(이사장 백수인·기념사업회)는 19일 제1회 ‘김현승 詩 문학상’에 다형의 제자 손광은 시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동구 전일빌딩245 9층 공연장에서 열린 ‘김현승 詩 문학제’에서 수상자로 선정된 손광은 시인(대리 수상 딸 손지형)에게 상금 2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이날 문학제와 시상식에는 시인인 이근배 전 대한민국예술원을 비롯해 김병내 남구정장,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 시민과 문학인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광주남구정, 광주예총, 광주일보, 광주문인협회, 한림문학재단이 후원하는 ‘김현승 詩 문학상’은 등단 20년 이상의 기성 시사위원회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근배 시인(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은 “손광은 시인은 등단한 후 60여 년의 긴 창작활동에서 탁월한 언어공법으로 독창적 시세계를 이루었다”며 “현대 한국시단의 원로이며 김현승 선생의 문학생으로 이론·시 창작의 업적을 높이 기린다”고 평했다.

보성 출신의 손광은 시인은 전남대 문리과 대학 및 동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전남대 대학원 국어국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72년 첫 시집 ‘파도의 말’을 비롯해 ‘고향 앞에 서서’, ‘그림자의 비활’, ‘내 마음 속에 눈부신 당신’, ‘민속의 숨결 신명을 풀어라’ 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다.

원탁시인 동인과 광주문인협회장, 한국언어문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김현승 詩 문학제’가 열렸다.

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다형기념사업회 회장을 역임했다.

문학제는 전경희 시낭송가가 김현승 시인의 역작 ‘플라타너스’를 낭송하는 것으로 막이 올랐다. 이어 백수인 대표 인사말과 이근배 전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김병내 남구정장,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 등의 축사와 이근배 시인의 심사평이 진행됐다.

시상에서는 문학상 후원 회장인 임원식 광주예총 회장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손광은 시인을 대신해 수상한 장녀 손지형 씨는 “아버지께서 수상 소식을 듣고 많이 기뻐하셨다”며 “특히 당신이 좋아하셨던 은사님 이름을 딴 문학상을 받게 돼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고 전했다.

문학강연도 이어졌다. 문순태 소설가는 ‘시와 커피로 고독을 이기다’ 내 인생에 축복이 된 스승

김현승 시인’을 주제로 다형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문 작가는 “선생님은 봄과 여름에는 수피아여고 뒷산 산책을 즐겼고 가을이면 전남농대의 플라타너스 숲길을 좋아했다. 어쩌면 선생님은 이 숲길에서 ‘플라타너스’라는 시의 영감을 얻었는지도 몰랐다”며 “약간 귀족적이면서도 외롭게 느껴지는 플라타너스와 가까이 다가가기에 너무 어려워 보이기만 했던 선생님은 어딘가 닮아 보였다”고 회고했다.

문학강연에 이은 축하공연에서는 박종근 시낭송가가 손광은 시인의 시 ‘파도의 말’을 낭송했다. 테너 김백호는 ‘가을의 기도’와 ‘빛의 소리를 듣다’(임원식)를 선사했다.

이날 참석자들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문학제는 막을 내렸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현승 詩 문학상’ 손광은 시인

60년 창작활동...독창적 詩세계 구축 “스승의 이름 딴 문학상 받아 뜻 깊어”

제1회 김현승 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손광은 시인은 “스승이고 존경하는 김현승 시인의 이름을 딴 시문학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큰딸 지형씨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현재 손광은 시인은 대전에서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아버지를 대신해 상을 받은 지형 씨는 “술 좋아하시고 친구 좋아하시고 풍류를 좋아하신 아버지는 천상 시인”이라며 “건강상 몸이 불편해서 시상식장에 오시지 못했지만 마음만큼 이곳에 와 개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에서 치과의사를 하고 있는 지형 씨는 “수상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지만 안타깝게 몸이 허락하지 않아 이곳에 오실 수 없었다”며 “짧았을 때부터 아버지는 ‘김현승 시인이 자신을 현대문학에 추천해 시인이 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시 쓰는 문우들을 비롯해 문학인들과 많은 교류를 하였고 정이 많으셔서 뭐든지 퍼 주는 스타일이셨다”고 말했다.

손광은 시인이 걸어온 길은 곧 ‘삶의 길’이었다. 그의 시작(詩作)은 감성을 토대로 현실의 삶을 담담하게 풀어내는 탐색 작업이었다. 삶의 흐름 가운데에서 시대적 정수를 찾거나 인간 영혼의 보편적 감성을 조형화하기도 했다.

1962년 ‘현대문학’에 김현승 시인의 추천으로 문단에 나온 이후 그는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시를 쓰는 문인으로 남도 문학의 발을 일구는 역할



을 해왔다. 보성군 노동면 금호리 생가에는 손광은 시인의 대표 작품을 새긴 시비가 세워져 있다. 음악된 작품은 ‘보리밭’이다. 60년대와 70년대 사회 일각에서 행해졌던 부정 축재자 색출을 ‘반어적’으로 꼬집는 작품

으로 당시에 큰 주목을 받았다. 평단은 손광은 시인에 대해 향토적, 토속적 가락을 토대로 정갈한 시를 써온 남도의 대표적 시인으로 평가한다.

때로는 민중의 삶과 숨결을 마당굿처럼, 때로는 판소리처럼 살아 약동하는 가락으로 형상화했다. ‘민속시’로 문학을 집대성한 최초의 민속시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손광은 시인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를 조금씩이라도 쓰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10권의 시집이 나왔다. 지난해 10번째 시집을 낸 이후 건강이 조금 안 좋았다고 한다.

지형 씨는 “아버지께서는 예전에 함께 활동하고 교류했던 문인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해 예전처럼 좋은 시를 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년 영화광들의 열정 다큐 ‘노란문’

봉준호 감독 등 10인 이야기 27일 넷플릭스 공개

‘기생충’(2019)과 같은 명작들로 세계적인 영화감독이 된 봉준호 감독의 첫 작품은 공식적으로는 단편 ‘백색인’(1993)이지만, 미공개 작품이 하나 더 있다. 단편 ‘룩킹 포 파라다이스’(1992)다. 어둡고 더러운 지하실의 고릴라 인형이 ‘퐁 벨레’의 공격을 피해 낙원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23분짜리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다. 당시 스톱모션 살이었던 봉 감독은 이 작품을 자신이 속해 있던 영화 동아리 ‘노란문’ 송년회에서 10여명의 멤버들에게 보여줬다. 그의 생애 첫 시사회였다.

이처럼 감독의 신작 ‘노란문: 세기말 시네필 다

이어리’(이하 ‘노란문’)는 ‘룩킹 포 파라다이스’에 대한 노란문 멤버들의 회상을 통해 1990년대 젊은 영화광들의 삶과 열정을 돌아보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오는 2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봉 감독을 포함한 노란문 멤버 10여명이 출연했다. 노란문의 리더였던 최중태 감독도 나온다.

이 영화는 지난해 초 노란문 멤버들이 화상회의를 통해 30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지금은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을 피운다. 노란문 멤버들의 개별 인터뷰 영상도 보여준다.

‘룩킹 포 파라다이스’의 주요 장면뿐 아니라 노란문 멤버들이 공부했던 고전 영화들의 명장면도 펼쳐진다.

노란문은 1990년대 초 동국대 대학원 휴학생이었던 최 감독을 주축으로 결성됐다. 인터넷도 없던 시절, 연세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의 영화광들이 입소문으로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영화 ‘노란문’은 오늘날 한국 영화를 이끌어가는 봉 감독의 재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1990년대 영화광들의 공동체에서 형성됐다는 걸 보여준다.

‘노란문’은 이달 초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와 이드 앵글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부문에 초청돼 ‘부산시네필상’을 받았다. 영화를 전공하는 대학생 심사위원단이 선정한 작품에 수여되는 상이다. /연합뉴스

배우·감독 5인 ‘아름다운예술인상’



이순재 임권택 이정재 김서형 조인성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선정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올해의 ‘아름다운예술인상’ 수상자로 배우 이정재, 이순재, 조인성, 김서형, 영화감독 임권택 등 5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단은 2011년부터 해마다 영화, 연극, 선행, 독립영화, 공로 부문에서 활동이 돋보인 예술인을 선정해 아름다운예술인상을 수여해왔다. 수상자는 각각 2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는다. 영화 부문 이정재는 지난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으로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에 기여했고 영화 ‘헌트’로 영화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극 부문 이순재는 올해 여든아홉의 나이에도 ‘리어왕’ 공연으로 열정적인 연기를 펼친 점, 선행 부문 조인성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 환자 돕기 등을 해온 점, 독립영화 부문 김서형은 ‘비닐하우스’에서 좋은 연기로 작품 완성도를 높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임권택 감독은 100여편의 작품을 연출하고 베네치아, 모스크바, 칸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아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해 공로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 | | | |
|--|---|---|--|
| <h3>대연건설</h3> <p>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p> | <h3>(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h3> <p>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의사, 식품화장품, 마시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p> | <h3>(주)대신수산유통</h3> <p>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p> | <h3>문화결혼상담소</h3> <p>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p> |
| <h3>꽃게랑 약선반찬 전집</h3> <p>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계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p> | <h3>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h3> <p>전남 나주시 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함도그1개 1000원 치즈함도그1개 1500원, 칠팔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p> | <h3>면쟁이</h3> <p>동구 산수동 518-14, 경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듬,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p> | <h3>(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h3> <p>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리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p> |
| <h3>동양철학원</h3>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 <h3>필스제화</h3> <p>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다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같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p> | <h3>인철(仁喆)익스프레스</h3> <p>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p> | <h3>석당화랑</h3> <p>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
| <h3>고전방</h3> <p>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 <h3>남도철학원</h3> <p>북구 전변우로79번길87(임동) 수강생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p> | <h3>송가네반찬</h3> <p>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p> | <h3>초대화랑</h3> <p>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
| | <h3>무크광주세정점</h3> <p>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멋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p> | <h3>법무사 황영수 사무소</h3> <p>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p> | <h3>도명명리심리연구소</h3> <p>학업적성, 진로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p> |